

아마존에 희망이 깃들기를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브라질 하면 우리는 축구와 삼바축제, 그리고 아마존이 떠올린다. 세계 최대의 아마존강 유역과 끝없는 열대 우림지대,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 원주민들. 한 참 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TV 다큐멘터리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 아마존 열대 정글의 파괴 훼손, 원주민들의 삶의 파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큐였다. 아마존이 지구촌 기후위기, 자연파괴, 생물종 다양성손실의 상징처럼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브라질 룰라(Rula)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마존에 희망이 밝은 빛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2030년까지 아마존의 벌채 제로(Zero)를 달성할 것'을 천명했고 아마존 보존의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전임자인 극우 보우소나로(Bolsonaro) 대통령의 아마존 개발정책을 180도 뒤집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세계 각국의 기후환경논자들, 그리고 언론은 브라질 대선을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다. 아마존의 보존 혹은 파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이자, 그곳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천만다행으로 브라질 국민은 아마존 보

존을 공약한 룰라 대통령을 선택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집트에서 개최된 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COP27)에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한 룰라는 그곳에서 '아마존 벌채 제로와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각국의 참석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로 그를 반겼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아마존의 벌채와 각종 개발을 용의하게 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여러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마존의 복원을 위한 아마존 기금의 운용을 정상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임자에 의해서 축소 왜곡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환경분야 노벨상인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통 환경론자인 마리나 실바(Marina Silva)를 기후환경장관으로 기용했다. 또한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원주민부'를 신설, 원주민로부터 추앙받는 소니아 구아자자라(Sonia Guajajara)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아마존의 보존과 원주민의 인권과 영토와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마존 유역은 남미 9개국 걸쳐 있고, 브라질이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곳의 열대우림이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공급해주는 지구의 '산소탱크'이자, 거대한 탄소의 흡수원으로 지구 대기를 조절한다. 또한 지구 생물종 다양성의 3분의 1을 보유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4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이 오랜 수천년간 숲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다. 말 그

대로 지구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벌채, 광산 혹은 석유 개발, 대규모 농업이나 목축의 등장, 고속도로 개설, 수력발전 댐 설치 등으로 아마존은 전체의 17%, 브라질 영역에서는 20% 정도가 파괴 훼손되었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시절 가장 많은 면적이 파괴되었다. 과학자들은 25-40% 파괴될 경우, '급변점(Tipping Point)'을 넘어선다고 예측한다. Tipping Point를 넘어서면 환경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파괴되고 이어서 재앙이 초래된다. 룰라 대통령의 '2030 벌채 제로' 선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파괴 훼손은 있을 수 없다는 인류의 염원이기도 하다.

'브라질의 트럼프' 전임자 보우소나루는 아마존의 생태적 인류사적 가치나 기후위기를 무시했다. 세계적인 아마존 보존의 주장에 대해 '이곳은 브라질의 영토이자 주권이 미치는 현장'이라며, '아마존은 선진국들의 생태공원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정글이 삶의 터전인 원주민들을 개발의 걸림돌로 취급했다. 그들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 터전이나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브라질 정부의 '2030 벌채 제로'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확고한 보존 보호 정책과 복원도 필요할 것이다. 원주민들의 인권과 영토와 문화도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 아마존의 눈물이 아마존의 희망으로 뒤바뀌는 과정에 있다.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정부에 열렬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社說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 재인증 환영

새 권고사항 이행 과제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첫 재인증에 성공해 오는 2026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2022년 9월 현장 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4일 재인증을 공식화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최초 인증 당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지난 4년간 충실히 이행했고, 특히 무등산이라는 하나의 지질유산을 둘러싼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 등 4개 지자체가 지질공원 운영에 공동 협력한 점을 가장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15개 신규 신청지역 가운데 5곳이 최종 인증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상절리라는 지질자원을 보유한 무등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어서다.

유네스코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새로운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 △유네스코 브랜드 공동 홍보 △방문객 센터와 안내센터 추가 설치 △지질 명소와 관련된 지역 정보(설명·문화 등) 활용 △기후변화·자연재해·지속가능개발 목표 등을 담은 지질 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평가위원들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풀어서 설명하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보유한 명소(인증 당시 20곳, 재인증 신청시 명소 4곳 추가)를 주변 문화와 역사와 묶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을 권고받은 셈이다. 앞으로 4년후 두번째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하여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 등 4개 지자체들은 협의를 통해 새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 문제와 무등산 난개발 방지와 옛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문제는 지역 현안이면서도 향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관심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잠식 당하는 농지... 보전 대책 강화해야

10년 새 여의도 632배 사라져

지난 10년간 서울과 인천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면적의 논밭이 사라졌다고 한다. 줄어드는 농지의 면적도 여의도의 632배에 이른다. 각종 개발에 따른 건물 건축과 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지 증가로 일정한 면적의 농지 감소는 예상해 왔다. 하지만 지난 한 해 3000ha의 경지가 증가한 반면, 2만 1000ha가 감소해 순 감소분이 1만 9000ha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공공재인 토지의 보존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경지면적이 줄면서 지난 10년간 사라진 경지가 총 18만 3199ha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서울과 인천을 합한 면적보다 넓고 2.9km에 이르는 여의도 면적의 632배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사라진 농지도 여의도의 64배에 달한다. 농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 또한 2020년 28만 6396ha에 이르던 농지가 지난해 27만 7095ha로 3년 새 9301ha

가 사라졌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다국적기업이 식량을 지배한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지키는 것도 국가적 숙제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는 등 농지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전용제도 개선에 힘을 쏟는 것도 최소한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가 잠식당하고, 유휴지가 늘어나는 것은 식량안보에 중요한 적신호다. 한번 파괴된 농지를 다시 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이미 건설된 시설을 처리하는 더 큰 난관도 넘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더 이상 농지 잠식을 '시대적 상황'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업과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지를 잃으면 우리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다. 최근에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겪으며 식량난을 경험했다. 적정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는 더 이상 수사(修辭)가 아니고 현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보다폰 경기장에서 튀르키예 슈퍼리그 베식타스와 안탈리아스포르의 경기 중 선수와 관계자들이 팬들이 던진 경기장의 인형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팬들은 지난 6일 강진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인형을 경기장에 던져 넣었다. 이스탄불=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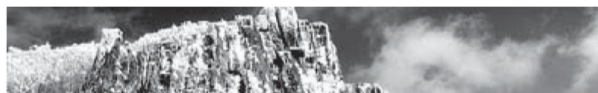
서색대

청자는 중국이 먼저 만들었으나, 그 미려함을 꽃피운 것은 고려였다. 도자기의 푸른색을 말하는 비색을 두고도 두 나라의 한자가 다르다. 송나라는 '황제만 쓸 수 있는 비밀스러운 색깔'이라 하여 습비(祕)자를 쓰고, 고려는 은은하면서도 맑은 비취색인데, 파랑도 초록도 아닌 오묘한 빛깔이라 하여 물총새 비(翡)자를 쓴다.

고려청자만의 '비색(翡色)'을 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지난 미학자 최순우는 "비가 개고 안개가 걷히면 먼 산마루 위에 담담하고 갓맑은 하늘빛"이라 표현했고, 글감옥 '해산도굴'에 스스로 간혀 오롯이 인간 성찰의 도구로써 글을 써왔던 한승원은 '참선하는 스님들의 깨달음과 무소유의 마음과 맑은 색'이라 했다.

우리나라에 청자가 등장한 시기를 두고 학설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9세기로 알려졌다. 이후 11세기 중엽, 중흥기를 거쳐 한층 세련미가 더해지고 운학문 같은 독자적 문양이 생겨난다. 청자 제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12세기에는 비색과 조형미가 최고조에 이른다. 이 무렵에 제작된 대표적인 작품이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靑磁 象嵌雲鶴文 梅瓶)'이다. 민중 문화재 지킴이 간송 전형필이 기와집 20채 값을 치르고 산 그 청자다.

고려 비색을 본 중국 관리들도 찬탄을 금치 못했다. 1123년 고려에 사절단으로 온 남송의 서긍은 청자의 색택



에 감탄해 사자모양 향로가 보여주는 비색을 '가히 일품'이라 극찬했고, 남송학자 태평인도 '수중금(袖中錦)'에서 송 청자의 비색(靑色)이 아닌 고려청자의 비색(翡色)을 천하제일로 꼽았다.

고려의 비색청자는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서 탄생한다. 국보, 보물로 지정된 청자 8할이 좋은 흙과 펄감이 풍부한 강진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1000년 고려청자의 본향, 강진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51년 청자축제 역사 가운데 '첫 겨울

개최'라는 강진군의 새로운 도전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열리는 '제51회 강진청자축제'는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돼 연일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축제에서는 한국민화뮤지엄, 명품청자 전시장 등 현장 순회와 함께 화북가마 요출 작품에 대한 즉석 경매 이벤트도 열렸다.

고려청자 특유의 오묘한 비색과 수려한 상감 문양이 새겨진 작품들이 경매에 등장할 때마다 관람객들의 탄성이 쏟아졌다고 한다.

새봄맞이 힐링 축제 '강진청자축제'가 이를 남았다. 봄바람 싱그러운 날, 누천년을 살아온 우리 선인들의 그윽한 정서가 담겨있는 고려청자의 비색을 감상하는 것도 꽤 낯선 선택일 듯하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